

4강 넘어 우승 꿈꾸는 “대~한민국”

U-20 월드컵 축구

승부차기 끝 세네갈 꺾고 4강



“광주·전남 출신 3총사가 선배들의 멕시코 4강 신화를 재현한 주역이었다.”

광주·전남 출신 김정민(리퍼링), 엄원상(광주FC), 황태현(안산그리너스FC) 선수가 36년 전 대한민국 축구의 4강 신화를 재현한 주역이 됐다. 이들은 신연호·김판근·노인우 등 과거 ‘호남 3총사’를 꼭 빼놓은 플레이로 U-20 월드컵 4강을 이끌었다. ‘김·엄·황’이 이끄는 대표팀은 사상 처음으로 피파(FIFA) 주관 대회 우승도 꿈꾸게 됐다. <관련 기사 2,3면>

정정용 감독이 이끄는 한국 20세 이하(U-20) 대표팀이 9일 새벽 폴란드 비엘스코-비아와 경기장에서 열린 2019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8강전에서 연장 혈투를 벌여 ‘우승 후보’ 세네갈과 3-3으로 비긴 뒤 승부차기 끝에 3-2로 이겼다.

1-2로 끌려가 패색이 짙던 후반 추가시간 8분 이강인(발렌시아)의 코너킥에 이은 이지솔(대전)의 헤더골로 승부를 연장으로 몰고간 뒤 연장 전반 6분 이강인의 스루패스를 받은 조영욱(서울FC)의 득점으로 3-2로 앞섰다. 비록 연장 후반 추가시간 아마두 시스에게 동점골을 내주고 승부차기에서도 1, 2번째 키커가 실축하는 어려운 상황을 맞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투혼의 역전승을 완성했다.

광양제철중·광양제철고를 나온 황태현은 대표팀 주장으로 전 경기 선발 출전하며 대표팀의 오른쪽 측면 수비를 책임졌다. 체력을 앞세운 황태현은 그라운드에서 중원무진, 세네갈의 공세를 차단했다. 황태현의 아버지 황수환씨는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세네갈전이 끝나고 태현이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한·일전, 세네갈전에서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 경기 끝나고 구토할 정도였다’고 했다”며 “태현이가 ‘이제 결과보다 후회없이 최선을 다해 즐기는 축구를 하고 싶다’는 말을 남겼다”고 전했다.



4강 ... 신화가 된 ‘젊은 세대’

9일 새벽 폴란드 비엘스코-비아와 경기장에서 열린 2019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8강 한국과 세네갈전의 경기. 승부차기 접전 끝에 4강 진출을 확정된 U-20 대표팀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앉아 태극기를 들고 기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민

엄원상

황태현

광주 경양초·광덕중·금호고를 졸업한 대표팀 ‘만행’ 엄원상은 주로 후반 조커로 출전해 상대편 측면을 공략하며 후반에 승부를 보는 정정용 감독의 교체카드 1순위였다. 한국이 2차례 실축한 승부차기에서 첫 골을 넣어 팀을 위기에서 건져냈다. 그는 일본전 후반에 투입돼 특유의 빠른 발로

36년 전 ‘호남 3총사’ 신연호·김판근·노인우 4강 신화 이번에도 ‘호남 3총사’ 김정민·엄원상·황태현 맹활약 신연호 감독 “후배들이 결승 올라 우리 기록 깨주었으면”

상대 측면을 휘저었다. ‘제2의 기성용’으로 불리는 광주 금호고 출신 김정민도 중원에서 활약하며 4강행에 일조했다. 그는 포지션의 특성상 튀지 않는 플레이로 공수를 조율하는 등 중원을 탄탄하고 두텁게 다졌다.

광주·전남 축구팬들은 이들의 활약을 보면서 1983년 멕시코 대회 4강 신화의 주역들을 떠올렸다. 광주·전남 출신 김판근, 신연호, 노인우 선수가 그들이다. 신연호 단국대 감독은 같은해 6월 11일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열린 제4회 대회 때 우루과이와 8강 1-1로 맞선 연장 전반 14분 김종부(경남FC 감독)의 크로스를 결승골로 연결, 4강 진출 기적을 만들었다. 노인우 선수는 홈팀 멕시코전에서 1-0으로 뒤진 상황에서 극적인 만회골을 넣었고 우루과이와 8

강전에서 신연호와 선취골을 합작했다. 김판근 선수는 수비수로 뛰면서 상대팀의 파상공세를 막아냈다.

신연호 단국대 감독은 “후배들이 결승까지 올라 36년 전 기록을 깨줬으면 좋겠다”면서 “상대팀(에콰도르)의 스피드를 차단하는 게 중요하고, 이강인의 발끝에서 나온 공을 광주 FC 엄원상, 오세훈과 조영욱 또는 전세진, 등이 잘 마무리해준다면 결승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오는 12일 새벽 3시 30분 16강에서 일본을 꺾은 폴란드 루블린에서 에콰도르와 결승행을 다룬다. 호남 3총사 선배들의 4강신화를 넘어 또다른 신화의 주역이 될지 주목된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네이버에서 ‘광주일보’를 검색하세요

광주일보 유튜브 채널 오픈

100년 신문을 향하는 광주일보 유튜브 채널이 오늘부터 새로운 이름 ‘광주일보’로 거듭납니다. ‘광주일보’는 광주일보가 가진 ‘광’으로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다는 뜻에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광주일보’에서는 영상 기사를 포함한 다채로운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광주일보가 현장을 찾아가 촬영한 다양하고 생생한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맞춤형 콘텐츠를 지향하는 ‘광주일보’는 댓글이나 메일로 들어온 제보에 따라 다양한 도전을 펼치기도 합니다.

네이버에서 ‘광주일보’를 검색해 주세요. 새로운 구독자 여러분을 위한 토스 쿠폰도 진행 중입니다. 정답을 맞춘 분들께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 드립니다.

光州日報社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민·관 역량 총결집

시설공사 오늘 마무리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광주시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한 달여를 앞두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민·관 역량을 총 결집하기로 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1개월 앞으로 다가온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각 분야의 준비와 추진상황을 최종 점검하기 위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종합지원계획 추진상황 보고회’가 지난 7일 시청에서 열렸다. 조직위는 이날 보고회에서 대회 시설의 경우 오는 20일 국제수영연맹(FINA)의 최종 현장 점검과 승인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선수촌 건립공사는 숙소 내부 마감, 편의·위락시설 설치, 기능실 구축 등 부대공사가 10일 모두 마무리된다.

또한, 대회 지원 요원과 자원봉사자 등을 포함한 운영 인력과 물자는 경기장과 선수촌 등 현장을 미리 배치해 대회기간 중 역할을 숙지하게 할 계획이다. 개·폐회식 의전과 수송 분야도 개막 한달을 앞두고 현장운영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조직위는 참가 선수들이 최고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관람객이 안전한

고 편안하게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본격적인 현장 중심 운영체제도 가동한다. 특히 지난해와 같은 재난 수준의 폭염에 대비해 경기장·선수촌 주변과 주요 거점 150개소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50개의 주요 노선에 살수차 운영과 함께 광주시 전역에 무더위 쉼터 500개소를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대회 지원과 시설관리 등 각 분야의 관계관이 참여하는 종합상황실도 설치·운영에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즉각적인 대처에 나설 예정이다.

시민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도 선수권대회(2800여명), 마스터즈 대회(1300여명) 기간 중 경기장과 선수촌 곳곳에 배치돼 경기 진행과 운영을 지원하고 관람객과 광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이용섭 시장은 “대회성공을 위해 시와 조직위, 자치구,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력과 정보공유, 소통이 중요하다”며 “수영대회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즉각 공유돼 선수와 관광객의 불편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입장권 구매와 기업체 기부도 잇따르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5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 ~ 2019]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커피는 여자가 타야 제맛?	▶6면
은퇴 후 생을 말하다	▶18면
KIA 하위권 탈출 수비에 달렸다	▶20면

피부균형을 리셋해 스스로 빛나는 피부로

LIMITED 설화수 윤조에센스

피부노화, 시간이 아닌 피부 속 불균형의 문제
자음단™을 담은 윤조에센스가 흔들리는 피부균형을 리셋해
5가지 젊음의 지표*를 최적의 상태로 끌어올려줍니다.
이제, 젊음의 밸런스로 다시 힘 있게 깨어나는 피부를 만나보세요

*자생력, 생기, 영양, 투명, 탄력

Sulwhasoo
FIRST CARE
ACTIVATING SERUM EX
윤조에센스